

세이비어 교회 소식

-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전교인 수련회 안내
일시: 8월 18(토)~19(주일) 장소: 포코노 수양관 회비: \$40
수련회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련회 준비 모임 안내
점심 식사 후에 전교인 수련회 준비 모임을 1층 친교실에서 갖습니다.
준비위원: 최홍만, 배한우, 허도행, 류홍덕, 송섭, 노미숙, 정경학, 김은혜
- 성찬식 및 세례식 안내(다음 주)
7월 29일(주일)에는 예배 중에 세례식과 성찬식이 있습니다.
- 중고등부 수련회 안내(다음 주)
7월 29~31일(주일~화요일)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 이번 주 친교
이번 주 친교는 김남양 권사님께서 음식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친교는 방기만 집사님, 이경희 권사님 가정에서 제공해 주십니다.

7월 봉사위원

일자	주일기도	수요예배	친 교	안 내
7/22		강병근	김남양	한순자
7/29	김유신	안영남	방기만, 이경희	한순자

예배 및 모임 안내

모임	시간	장소
주일예배(1부)	주일 오전 11시 30분	친교실
주일예배(2부)	주일 오후 1시 15분	본당
수요기도회	수요일 오후 8:00	본당
토요새벽기도회	토 새벽 6:00	본당
주일학교	주일 오후 1:15	친교실
성가연습	주일 오전 11시	성가대실
성경공부 (방학 중)	목요일 오전 10시 목요일 저녁 8시 토요일 오전 8시	1층 친교실

주일설교요약

제목 : 하나님 나라와 의

본문 : 사무엘상 20장 30~34절

기도제목 : 1.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 나라와 의가 있게 하소서!

2. 하나님에게 그리고 내 주변 사람에게 의리를 지키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3.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 성경 본문은 다윗과 함께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았던 요나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사울은 다윗을 도와준 요나단에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아들 요나단에게 했던 말을 잘 보세요.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러기에 다윗이 죽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말을 들어보면 사울은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이익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살아 있는 것이 사울뿐만 아니라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에게도 위협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첫째로 요나단은 자신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지만, 요나단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인 사울을 떠나 다윗에게로 하나님의 마음이 옮겨가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요나단 가운데 가장 큰 위험이 되는 다윗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다윗을 돕고자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알고 있었고 또 그렇게 행동하였습니다. 바로 요나단의 위대한 모습입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이익을 구하는 길에서 과감하게 돌아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마음이 지금 다윗에게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요나단은 다윗을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것이 설사 자신에게는 커다란 손해가 되는 길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요나단은 그렇게 하였습니다. 요나단의 이와같은 자신의 이익을 내려놓는 결단으로 인하여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요나단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귀한 도전이 됩니다. 나는 내 이익을 구하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힘써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들도 요나단과 같이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힘써 구하며 살아가고 싶은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의 이야기를 통하여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요나단이 보여 주었던 의리에 관한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도 의리를 지켰고, 아버지 사울에게도 의리를 지켰던 사람입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 요나단은 의리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도 귀한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을 떠나 다윗 편에 충분히 설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친구입니다. 다윗의 군대장관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 나라와 의를 세우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도 손가락질 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아버지 사울에 대하여 충성을 다 하였습니다. 부모에게 효를 다하고 친구 다윗에게 우정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서로 서로 모순이 되는 상황이었지만, 요나단은 양쪽에 다 의리를 지켰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을 향한 의리를 지키고 결국 목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의리를 지킨다는 것은 이와같이 손해와 희생이 따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우리가 이 땅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왕 사울 밑에서 신하로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요나단이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향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요나단의 삶은 모순덩어리였습니다. 사울을 버릴 수도, 그렇다고 다윗을 좇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단지 요나단은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비슷한 처지와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불의를 보고 눈을 감아야 할 때가 있고, 내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주변사람들과 치열하게 싸워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상황과 처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고민도 아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의를 지키고 드러내며 살아가기가 쉽지 않는 세상임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또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어진 여건 속에서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자신의 의를 위하여 우리 모두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지난 주 헌금

헌금은 본당 입구 헌금함에 넣으시면 됩니다

구역별 선교사

롱아일랜드 구역	베이사이드 구역	플러싱 구역	우드사이드 구역
순회 선교	우간다	브라질	인도

담임목사 정요한

시무장로 최홍만 배한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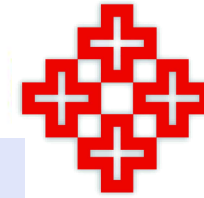
교육전도사 김차인 김호진 지휘자/반주자 김타마라

Address: 275 Lakeville Road

Great Neck, NY 11020

Tel : (718) 673-6448 / www.mysaviorchurch.com

2018년 7월 22일



SAVIOR
세이비어 CHURCH
교회

주일예배

	오전 11:30분(1부) 오후 1:15분(2부)	수요일예배
예배로 부르심 Call to Worship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경배와 찬양 말씀 / 정요한 목사 (베드로후서 강해) 기도: 강병근 집사
▲ 송영 Invocation	찬양대 Chorus	
▲ 고백의 기도 Confession of Sin	다같이 Together	
▲ 찬 송 Hymn	28장	
▲ 신앙고백 Confession of Faith	사도신경 Apostles' Creed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25번(시편103편)	
찬 송 Hymn	246장	
기 도 Prayer	최홍만 장로	
성 경 Scripture	사무엘상 20장 30~34절	
찬 양 Praise	세이비어 찬양대	
설 교 Message	하나님 나라와 의	토요일 새벽기도회
▲ 헌 금 Offering	71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사도행전 강해 토요일 새벽 오전 6시
▲ 찬 송 Hymn	521장	
▲ 축 도 Benediction	정요한 목사	
교회소식 Announcement	인도자	

▲ 표는 가능하시면 일어나심 (Standing, If possible)